

학생자치활동의 실상과 이상

배 규 한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학생처장



1. 학생자치의 의의와 활동 영역

1) 자치활동의 의의와 중요성

대학은 원래 중세 유럽에서 개인적 사
 대 고의 자유와 그 권리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인격함양과 진리탐구를
 위한 자율적·자치적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당시의 현실적 요청
 과 필요에 의하여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
 다. 그러므로 대학은 진리탐구와 사회적 요
 구에 따른 실용적 지식의 추구라는 두 가지
 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킬 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사회적 요청에 부
 응하여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되, 강단에
 서는 전수할 수 없는 지적 능력의 배양이나

인격도야를 위한 대학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창달의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
 서 대학이 고도의 전문지식만을 전수하는
 기관처럼 되어가고 있다. 전문교육에 치우
 치다 보니 전인교육이 소홀해지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경제성장, 선진
 국 진입, 과학기술 개발, 취업 등을 너무 강
 조한 나머지 실용적 교육에 치우친 감이 없
 지 않다. 건전한 인격형성은 지식의 전수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덕성과 건강한 신체
 교육을 병행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교
 육은 지식의 전수를 위한 정규 교과교육과
 그 외의 비정규 교과교육을 포괄한다.

자치활동이란 다양한 교육과정 중에서 학
 생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하는 비정규 교과
 교육의 한 양식이다. 학생자치활동은 전문

지식 교육만으로는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정 의적 영역과 신체적 영역의 발달을 가능하 게 해준다.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 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적 자질을 함양 할 수 있고, 특별히 관심있는 전문분야를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여가 를 즐길 수 있는 소양을 기를 수도 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은 지적이며 진취적인 대 학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발 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요컨대, 학 생자치활동은 전인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할 뿐 아니라 개인적 인격형성과 사회적 문화 창조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2) 학생자치활동 현황

한국 대학생들의 주요 자치활동을 대별하 면 동아리 활동, 대학언론 활동, 학생회 활 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동아리 활 동은 학생들이 자기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 한 형태의 자발적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이 루어진다.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개 50여 종 이상의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문학·역사·영어·컴퓨 터 등에 관심을 두는 '학술동아리', 경제문 제·사회적 모순·인간해방 등을 다루는 '이 념동아리', 기독교·카톨릭·불교·증산도 등 의 '종교동아리', 합창반·오케스트라·보컬 그룹·사물놀이 등의 '음악동아리', 사진·영 화·연극 등에 관심을 가지는 '예술동아리', 적십자 활동·탁아 활동·장애인 지원 등을 주로 하는 '봉사동아리', 검도·씨름·태권· 등산·스킨스쿠버·구기운동 등 다양한 '스포 츠동아리', 서도·바둑·침술·아마무선과 같 은 '취미동아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 외에 전공영역 을 중심으로 모이는 각 학과내 학회들도 다

수 있다. 과거에는 '서클'이라고 하던 것을 '동아리'로 이름을 바꾼 데서 알 수 있듯이, 대개 대학 생활의 참된 의미를 찾는 데 노 려할 뿐 아니라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고 취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그 정도 가 지나쳐 실습과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강 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확대 심화하고, 개인 의 인격함양에 기여한다는 동아리 활동 본 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경우도 있다. 동아리 활동이 내건 어떤 이념에 매몰되어 정규교 과 교육과정을 등한시함으로써 주객이 전도 되어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학생들의 언론 활동은 대개 신문사, 방 송국, 영자신문사 등 3개 영역에서 이루어 진다. 그 중에서 대학신문이 그 역사나 학 내·외적 영향력 등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하 다. 대학신문의 본질은 자유, 정의, 진리에 바탕을 둔 아카데미즘에 입각하여 사회현상 을 분석하고, 비판정신과 논리적 사고를 통 하여 현실 개선에 기여하는 데 있다. 대학 신문은 일반 신문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아 니라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특성의 대학 구 성원들을 독자로 한다. 그러므로 대학의 구 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모두를 위한 공통 의 관심사를 다루어야 한다. 대학신문은 대 내적으로는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 매체로 서 캠퍼스내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며, 대외적으로는 대학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1980년 신군부의 정권찬탈 이후 기성언 론이 침묵을 지킬 때, 대학신문은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함으로 써 대학내 민주화 여론형성의 광장이 되었 고, 학생운동의 강력한 지원자 역할을 해왔 다. 학생운동권과 대학언론의 친화성은 군 부독재 타도에는 기여하였지만, 이후 대학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침해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지지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 대학신문은 어떤 특정 집단의 지배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되며, 대학언론으로서의 아카데미즘과 자율성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한국에서 대학생 자치활동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학생회 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생회는 학과별·단과대학별로 조직되며, 이들이 모여 총학생회를 구성한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는 다시 지역별 또는 전국적인 연합체를 형성한다. 해방후 반세기 동안 학생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크게 헌신해 왔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학생운동은 반정부운동의 성격을 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비정통성과 부도덕성으로 인하여 시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학생운동은 급변하는 시대조류와 시민의식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산업사회의 냉전이데올로기 틀 속에서 계급운동의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운동으로서의 탄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학생회 활동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온 지성의 마비현상이다. 총학생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봄, 가을에 개최하는 체육대회 또는 축제이다. 대학축제는 교육의 연장으로서 아카데미즘적 활동의 총집결장이며, 동시에 젊음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잔치마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제는 '대동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참여율을 나타낸다. 교수나 직원은 물론 대다수 학생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일부 학생들만의 행사가 되고 있다.

행사내용 또한 학술적 목적과는 거리가 먼 학생운동의 논리확산 아니면 단순한 유희적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 최근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교내에 주점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학생들은 행사에 참여하기보다 주점에 모이기를 즐겨하며, 축제는 술 취한 군상의 추한 모습과 쓰레기로 끝난다.

2. 이념의 틀에 갇힌 학생운동

1) 자치활동과 학생운동

20세기 후반 인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는 정보화의 물결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는 보다 다원화되어 간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무감각한 채 과거의 이분법적 논리와 계급투쟁, 일사불란한 조직과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운동의 성패는 규범적 우월성에 있다. 학생운동은 물리적인 힘으로써가 아니라 다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따른 여론의 힘으로 기존의 질서를 변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은 규범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결코 사회적 힘을 지닐 수 없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학생운동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청년다운 순수함과 거칠지만 올바른 주장에 시민들이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오늘의 학생운동은 순수함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조직행동이 원칙보다는 전략전술에 치우치며, 방법론에 있어서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보다는 주의나 주장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의 총학생회는 전국적 연합체의 지침에 따라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하며, 대학내 자치활동의 대부분이 총학생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단과대 학생회나 학과별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동아리 활동이나 대학신문의 편집까지도 총학생회와 노선을 함께 한다. 특히 이념동아리나 사물패 동아리 등은 학생회 활동에 논리적 바탕을 제공하거나 문화선전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대학신문은 학생회 활동에 무비판적이며, 학생회 활동에 대한 선전이나 광고를 당연시한다. 편집권의 자율성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도 이른바 운동권으로부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자성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자치활동은 무엇보다도 자율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학생자치활동이 어떤 경직된 틀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의 대학생 자치활동은 아직도 학생운동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사회봉사 활동까지도 노학연대, 농학연대 등의 이름으로 계급투쟁론적 차원이나 학생운동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이념적인 학생운동과 동일한 틀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학생운동은 사회적 모순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학생들의 조직적·지속적 집합행동인 반면, 자치활동은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행할 수 없는 다양한 내용들을 개개인의 관심에 따라 실습적 차원에서 행하는 교육의 연장이다. 자치활동이 운동의 논리에 지배된다면 교육적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2) 의식화와 철학의 빈곤

자치활동의 생명은 말 그대로 개개인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발적 행동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의 자치활동은 대부분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조직적 논리의 틀 속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념은 개별적 다양성을 무시한 채 어떤 원칙의 당위성과 적용만을 고집한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념은 인간의 의식과 활동을 쇄신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을 독선과 독단으로 획일화시킨다. 이념의 늪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의식화시키고자 한다. 의식화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러 모순을 깨닫게 하는 학습'이다. 부조리한 현실이든 분배의 불평등이든 현재의 상황은 모두 모순이라고 우선 인식하게 하며, 그 다음은 모든 모순에 맞서는 데 필요한 방법을 학습시켜 나가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학생들은 진학이라는 지상목표에 눌러 자아개발을 위한 자치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다가, 대학생이 되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동문환영회 등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술, 담배도 해보고 이성파 대화도 해보지만, 어느 순간 의식있는 학생들은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허탈감을 느끼고 방황하기 시작할 때 일부 학생들은 선배나 학회활동 등의 인연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배우게 된다. 소그룹 스터디는 선배의 안내에 따라 선정된 책을 읽고 토론하는 형식을 취한다. 대개 주 1회, 하루 2시간 정도씩 단계적인 공부를 하며, 방학 때는 약 1주일 정도 집중교육을 받기도 한다. 스터디가 끝난 후에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울분을 토하거나 운

동가를 소리높여 부른다. 사회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학구파보다는 사회개혁의 투사가 되어가는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며 학교 성적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의식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판적 인식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늪에 매몰되어 시민으로서의 생활철학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념의 실천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여타 활동은 그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온갖 플래카드와 대자보, 그리고 불법 부착물들이 대학 캠퍼스를 어지럽히지만, 이것은 선전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할 뿐, 환경오염이나 일상생활의 파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멋대로 내붙인 부착물을 환경미화원이 제거하기라도 하면 무슨 큰 권리나 제약당한 것처럼 항의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팽파리를 울리거나 스피커를 내걸고 집회를 하면서도, 선전활동을 위한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뿐, 연구와 강의를 방해한다거나 다수의 생활을 파괴하는 소음공해라고 생각할 줄 모른다. 강의를 거부하면서까지 교육환경 개선을 외치지만, 온 캠퍼스에 필력이는 저질 광고물과 정치구호, 강의실을 메우는 낙서와 담배꽂초 등에 대한 자정운동은 없다.

3) 경력과 멍에

갈등론적 시각에 바탕을 둔 학생회 활동은 대학내 구성원들의 관계까지도 계급론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학교 당국을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모든 학생회 활동이 투쟁으로 표현된다. 매년 개강하면 학생회는 등록금 투쟁부터 시작하여, 교육재정 확보 투쟁, 학원자주화 투쟁, 총선거 투쟁, 보안법 철폐 투쟁, 5·18학살자 처벌 투쟁, 통일 투

쟁 등으로 쟁점을 바꾸어 가며 끝없이 투쟁을 계속한다. 도서관이 완공되면 가열찬 투쟁의 성과물로 도서관을 지었다고 하고, 셔틀버스 운행노선 허가를 받으면 이것 또한 쟁취했다고 주장한다. 활동경력은 곧 투쟁경력이 되므로 활동을 많이 할수록 투사가 된다.

학생자치활동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정규교육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은 오히려 정규교육과 상호배타적이다. 학생회 활동은 물론이고 학보사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 학교공부는 '시간이 없어' 못하는 기현상을 보인다. 학생자치활동을 대학 생활과 별개의 것으로 보면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기 때문이다. 강의와 개인 생활을 희생하며 하는 자치활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매한 대중을 위한 전위로서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원화된 정보사회에서 개인과 다양성을 부정하는 그들보다 더 우매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1992년 이른바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학생운동은 정치적 상황변화에 맞추어 민주화보다는 통일문제로 초점을 바꾸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쟁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투쟁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니, 통일운동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내적인 반정부·반체제 운동이 되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대되는 논리를 개발해 나가다 보니 북한측 주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하고, 약화된 입지를 회복하려는 무리수가 폭력을 수반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은 자아개발과 실천적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귀중한 경험

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자치활동은 오히려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방해함으로써 일생의 명예가 되고 있다.

3. 자치활동의 새로운 방향

대학문화는 학문에 대한 교수들의 진지한 자세,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학생들의 높은 이상, 학생과 교수가 어우러져 일궈내는 진리탐구의 과정, 대학의 역사와 전통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된다. 청년이 미래의 공기를 호흡하듯, 대학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학문화는 미래창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오늘날 대학문화는 지나친 '정치지향'과 '소비문화'라는 두 가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얼룩져 있다. 대부분의 학생회 활동이 정치적 쟁점을 중심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행위양식 또한 정치적이다. 그 외의 대부분 활동은 소비지향적이며 향락적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은 형태적으로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기성사회의 문화를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미래문화의 창조자가 되어야 할 대학생들이 기성 정치인들의 흉내를 내거나 향락적 소비문화를 쫓아가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생들이 스스로 엘리트임을 자처하고 대학이 지성의 전당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학생자치활동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대학이 사회를 비판하면서 저급의 기성문화를 모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시대적 흐름을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창조에 앞장서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계속

되어 온 한국의 학생운동에 전환기가 오고 있다. 학생운동에 미미하나마 변화의 징후가 느껴진다.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사회운동이 계급투쟁 중심에서 생활 중심의 신사회운동으로 옮겨 가는 것처럼, 학생운동도 사회변동의 추세에 맞게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학생운동이 철학적 바탕을 상실하고 독단과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오히려 급격한 방향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지적 풍토를 바꾸어 나갈 새로운 학생자치활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만 할 것이다.

1) 대학 생활과 자치활동의 조화

고대 이전까지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중세에는 전체적 억압으로부터 신체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해 왔다. 근대로 들어서면서 인류는 정치적 자유를 갈망했고, 20세기 이후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 고자 노력해 왔다. 21세기를 앞두고 인류는 문화적 자유와 자아실현을 갈망하고 있다. 국가적 부보다는 개인적 삶의 질을 중시하며, 경제성장보다는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진다.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한다. 직장과 일보다는 가정과 여가생활을 귀중하게 생각한다. 학생자치활동도 이제는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의 일사불란한 참여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보다 풍요로운 대학 생활을 누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개인의 대학 생활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과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더욱 풍요롭게 해 줄 수 있

는 자치활동이 되어야만 다수 학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미래창조의 실험정신

농경사회에서 생산의 바탕은 토지였고, 산업사회 생산의 현장은 공장이었다. 그러나 정보화와 함께 생산성 향상의 근원은 연구소 또는 대학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학은 기존의 질서를 비판함으로써 신질서를 제시할 뿐 아니라,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보다 나은 창조의 길을 모색하는 곳이다. 대학생의 자치활동은 경직된 이데올로기나 단순한 비판의 차원을 넘어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새로운 질서와 행위양식을 탐구하는 치열한 실험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3) 상상력과 새로운 문화창달

대학생들은 분수처럼 솟구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창달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과거 대학문화의 형성을 억제했던 것은 권위주의적 기성문화와 사회적 고정관념이었다. 지금 대학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세계화, 정보화, 교육개혁 등의 기치 아래 갖가지 획기적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 이념과 향락적 소비주의에 젖은 학생운동이 대학의 변화를 저해하고 있다. 시대를 선도할 이상적인 대학문화는 개인적 상상력을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자율적·관용적 풍토에서만 발아될 수 있다. 전국적인 대학생 조직의 결정에 따라 모든 대학 총학생회가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의 모든 자치활동이 학생회 활동에 종속되는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다원적이고 자율적인 대학문화를 꽃피울 수 없다.

4) 지성적 사회참여

대학생도 당연히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시민의 일원으로서 질서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대학인의 사회참여는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새로운 이상을 주창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생들의 이상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무력으로 관철시킬 수는 없다. 1960년대 미국 대학가에서 반전 데모가 한창일 때 주 방위군이 캠퍼스에 진주하자, 시위학생들은 총구에 꽃을 꽂으며 '평화'를 외쳤다. 또 캠퍼스 잔디밭에 온통 하얀 십자가를 세워 공동묘지처럼 만들고 월남 전사자 명단을 읽었다고 한다. 독일 대학생들은 불밝은 도서관 옆, 아름다운 밤의 호숫가를 줄지어 돌며 소리없이 피케팅 시위를 했다고 한다. 행동에 급급하여 진리탐구를 쟁개치거나 지성의 전당을 정치투쟁 장소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시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불법과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화염병, 쇠파이프, 분노의 돌맹이로는 결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낼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배규한/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처장을 맡고 있고 전국 대학 학생처장협의회장으로 활동중이며,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과 교육부 대학교육심의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미래사회학』, 『Automobile Workers in Korea』, 『동계조사론』(공저),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 전략』(공저), 『21세기의 한국과 한국인』(공저) 등이 있다.